

# 제조업, 코로나 타격에도 일자리는 버텼다... “고용 늘려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고용 충격이 크지 않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극대화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분야와 바이오헬스, 식품품 제조 분야가 양질 또는 대량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다.

아울러 제조업 일자리는 중상위층이 노동소득을 유지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취업에 목이 마른 20~30대 청년층에게 금융업 다음으로 높은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자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일자리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조언이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식되던 제조업이 고용 유지 및 창출과 고용 안정 측면에선 서비스업보다 뛰어나 ‘고용 있는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산업연구원이 11일 펴



**산업연구원 보고서**  
제조업, 고용충격 완충역할 ‘특독’  
중상위층 노동소득 유지효과 크고  
청년층에는 높은소득 제공하기도  
식품제조 등 일자리 창출 탁월

/유투이미지

낸 산업경제이슈 ‘제조업 고용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업종 검토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은 코로나19 시기에 단기적인 생산충격이 고용하락으로 전파되는 정도를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 제조업은 또 장시간 근로를 통해 중상위 노동소득을 얻을 수 있는 중산

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분석 결과 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 생산지수는 제조업에서 크게 하락했다.

제조업과 광업을 포괄하는 광공업 생산지수는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 109.9에서 95.6으로 13%포인트(p)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20년 1월에서 3월 사이 110에서 101.8로 7.5%p 하락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충격도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제조업의 실질 GDP는 125조원에서 113조원으로 12조원(9.6%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은 265조원에서 256조원으로 9조원(3.4%p) 줄었다.

하지만 ‘고용 충격’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 더 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수 기준으로 코로나19 시기 동안 제조업 고용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서비스업 고용은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연구원 길은선 부연구위원은 “제조업 고용은 단기 충격 등 작은 변동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지나가

는 경우가 많지만 그 충격이 누적돼 산업 구조조정을 가져올 땐 큰 폭의 분절적인 고용 감소를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노동 비축’을 하는 제조업은 코로나19 생산 충격을 고용으로 전파하지 않아 일시적 경제 위기에 대해 부정적 충격의 확산을 흡수하는 완충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향후 산업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일자리 제조업’으로 바이오헬스를 주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의약품이나 의료용 기기 제조업이 대표적이다.

또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는 업종으로는 화학, 일반기계, 식품품, 전기장비를 꼽았다. 이외에 비주력 제조업인 전기,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특수기계도 대량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업종으로 내다봤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롯데글로벌로지스, 전기택배차 도입 확대

배송 현장 9곳에 18대 추가 투입  
2030년까지 전면 친환경차 전환

롯데글로벌로지스가 2030년까지 모든 택배차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한다.

11일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친환경 콜드체인(Cold-Chain·냉장·냉동 물류) 전기화물차를 배송에 정식 투입한 이후 ‘전기택배차 신규 현장 배치 및 전기차(EV) 충전소 오픈’ 행사를 추가로 갖고 전기택배차 도입 확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 구로, 경기도 군포와 남양주, 천안, 대전, 울산, 제주 등 9개 배송 현장에 전기택배차 18대를 추가 투입했다. 이번에 도입된 전기택배차는 현대자동차 ‘포터2 일렉트릭’으로 한번 충전에 211km 주행이 가능하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해 서울 송



경기 남양주 소재 롯데택배 서울북부지점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 안대준 택배사업본부장(왼쪽)이 택배기사에게 전기택배차를 인도하는 전달식을 갖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파구 소재 동남권 온라인센터와 2019년 대전에 배치된 전기택배차 각 1대 그리고 3자물류 배송차량 4대를 포함해 총 24대의 전기택배차를 운용하게 된다. 오는 2030년엔 모든 택배차를 친환경차로 바꾼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EV충전기도 추

가 설치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서울 구로와 경기도 남양주, 울산, 제주에 EV충전기 6기를 추가 오픈해 기존에 설치된 EV충전기 7기를 포함해 총 13기를 운영하게 된다. EV충전기는 향후 전기택배차가 도입되는 사업장 위주로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소진공, 서귀포센터 개소... “밀착 지원”

울산북부 등 하반기 4곳 문 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하반기에 제주 서귀포, 울산북부 등 4곳의 센터를 새로 연다.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들 4곳을 포함하면 소진공이 운영하는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는 66개에서 70개로 늘어나게 된다.

11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센터를 개소했다. 오는 16일에는 울산북부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후엔 경기 용인센터, 안성센터도 개소를 예정하고 있다.

서귀포센터는 제주 서귀포시내의 모든 지역을 관할한다.

그동안 서귀포 지역 민원인은 지원 업무, 민원 상담 등을 위해서 제주센터 방문해야했지만 이번 센터 신설로



이용 편의가 한껏 개선됐다. 앞으로 제주 시 소재 민원인은 제주센터, 서귀포시 소재 민원인은 서귀포센터를 각각 이용하면 된다.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울산센터 한 곳에서 시 전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담당했다. 이번 북부센터 개설로 울산 중구, 북구, 동구는 북부센터에서, 남구와 울주군은 남부센터(기존 울산센터)에서 담당하게 돼 지역 소상공인의 밀착지원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사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정책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신규센터 개소로 소상공인의 현장 밀착 지원과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사업 추진

최대 2억 지원...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8월 4일까지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올해 새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저탄소 경영 전환을 촉진한다.

지원 대상은 용접, 소성가공, 주조, 열처리 등 뿌리기술기업이나 섬유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6개 업종이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 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를 윈스톱으로 특화 지원한다.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민간 에너지 관리 전문가가 에너지 이용 실태와 손실 요인 등 현황을 진

단하면 이를 바탕으로 중진공과 전문가가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제조데이터 기반 에너지 관리·공정혁신 솔루션, 이와 연계된 계측·제어 시스템, 자동화 설비 도입에 더해 에너지 감축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 교체까지 지원한다.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고도화는 최대 2억원, 기초와 동일수준은 70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총 30억원이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탄소중립 바우처 사업’ 참여사 모집

최대 5000만원 한도서 9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조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수준 진단 후 심층 컨설팅을 추진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2개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탄소 배출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1곳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바우처 발급금액의 90%를 지원한다. 10%는 기업이 분담해야한다. /김승호 기자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동연, 19일 자서전 출간... 대권 행보 시동거나 /사진 뉴시스  
▲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갑질 의혹 반박... ‘마녀사냥’

▲ 논산 육군훈련소서 코로나 확진자 6명 추가... 軍 내 누적 확진자 1134명  
▲ 제주,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식당 등 영업 제한



▲ 서울서 1년간 아파트값 많이 오른 상위 3곳은 ‘노·도·강’ /사진 뉴시스  
▲ 한국, 191개국 무비자 방문... 여권지수 세계 3위